

■ 워크샵 소개 ■

워크샵: 영화 속의 이주

2013년 이민인종연구회 하반기 학술 워크샵에서는 영화 속에 나타난 이민자들의 모습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비해 이민의 역사가 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양사회에서는 이민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든 아니면 주변적인 인물로 처리하든 많은 이민자들이 영화 속의 인물들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민’이라는 주제로 이민자들을 주요 인물로 내세워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이민이 정치 및 사회적 이슈로 첨예해지기 시작한 시기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민과 이주를 주제로 영화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이민자들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화라는 예술장르가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감독을 비롯한 영화 제작자들의 주관적 관점과 해석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영화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논의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먼저 영화 내적인 차원에서 영화가 어떤 이민자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는지? 영화속의 이민자는 해당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민자들과 이민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영화 외적인 차원에서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해당 사회와 그 사회의 이민자 문제에 대한 감독의 시선은 어떠한지? 감독의 해석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감독의 문제제기는 적실한 것인지? 우리는 영화가 일정부분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를 통해 한 사회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화의 가치와 의의를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워크샵에서 준비된 세 편의 발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의 이민자 문제들을 다룬 영화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편의 영화들은 단지 이민자 문제들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민자 문제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여성, 경제, 가족, 전쟁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풍성하고도 열띤 논쟁의 장을 열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